재난 시 응급센터 대응 연구 :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례

The Experience of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Disaster : A cas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-Coronavirus Epidemic in Korea

왕 순 주*
Wang, Soon-Joo

요 약

본 논문은 2013년 5월 국제바이러스 분류 위원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(MERS-CoV)라 명명한 후, 2015년 5월 국내에 감염자가 들어와 이후 확산되고,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 발생 후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일개 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한 내용이다.

1. 서론

중동호흡기증후군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(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; MERS-CoV)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으로서, 2013년 5월 국제바이러스 분류 위원회(ICTV, 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)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(MERS-CoV)라 명명하였고 2015년 5월 국내에 감염자가 들어와 이후 확산되었고, 이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 발생 후 국내 및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일개 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하였다.

2. 본론

메르스 감염 환자 확인 이후 국내의 대응 조직으로서 중앙 및 시도 메르스관리대책본부, 범부처 대책지원본부,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가 있다.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자가 되어 메르스 대응 관련 상황 및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총괄하고, 시도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지원한다. 범부처 대책지원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책임자가 되어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의 협조요청 사항을 지원하고,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각 부처 역할을 조정하며,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파악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.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책임을 맡고,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 정책 결정 방향 설정 및 평가와,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한 상황 분석 및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.

2015년 5월 25일 대상 병원의 응급센터로 57세 여자 환자가 타병원으로 이송 도중 호흡곤란이 심해지고

* 정회원, 한림대학교 응급의학교실 교수, erwsj@chol.com

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아 중간에 본원 응급센터로 급히 내원하였으며, ECMO 등 중환자처치를 시행하였다. 내원 4일 후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됨이 밝혀졌고 내원 7일 후 환자는 사망하여고 이는 국내의 첫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이다. 이후 ICU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, 노출 가능 의료진을 포함한 가능성 있는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되었다. 이를 통해 자가 격리 환자 및 원내 격리 환자를 분류하고 철저한 관리에 들어갔다. 이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병원 진료를 정상화 하였다.

3. 결론

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 확산에 대비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초기 대응시 철저한 격리와 중환자실 코호트 격리를 통하여 성공적인 감염 통제를 이뤄내었다.

감사의 글

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원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, 본 연구를 가능케 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